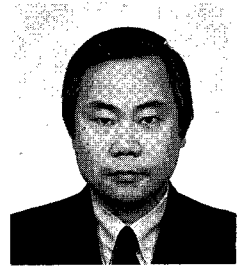


사람과 닭



김 종 택

천호제일사료 기술지원담당이사

한해가 또 저물어 간다. 가는것이 좋던 오는 것이 좋던 세월은 흐르게 되어 있고 살아있는 것은 나이를 먹게된다. 이달에는 한해를 정리하면서 양계질병에 대한 암기식 또는 단어나열식 이해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사람과 닭 일반

필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질병예방 또는 치료시에 항상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이나 하면 사람 나이와 닭의 주령은 그렇게 똑 같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다. 사람이 나게되면 포대기에 싸서 찬바람을 막아주고 젖도 자주 먹여주어 튼튼하게 자라도록 부모들이 보살펴 준다. 7살이 되어 국민학교에 들어가면 대견스

러워 이제 다 키웠다고 이야기하고 소년기를 지나 18세정도가 되면 성적으로는 거의 완속하게 된다.

옛날 어른들께서는 이 나이에 애기까지 보았으니 말이다. 그리고 20대의 청년기를 거쳐 30대까지는 체력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왕성한 시기를 보이게 되며 40대에 들어서면 배도 나오면서 행동도 다소 둔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50대가 되면 중년의 체력을 다소나마 걱정하면서 체력관리에 신경을 쓰게되고 대신 모든 것에 여유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는 70대후반 80대에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쉬운 이야기가 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성 평균수명이 75세라 하니 어쩔수 없는 것 아닌가. 닭질병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똥단지 같이 사람나이를 이야기하는가

하고 생각하실분도 계실터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입추를 하게 되면 온도, 습도를 맞추어 주고 사료도 조금씩 자주 주며 밤에도 나와 한번씩 살펴보는 정성을 보인다. 예전에는 육추실에 침구를 갖다놓고 같이 잠을 자면서 밤잠을 설치기도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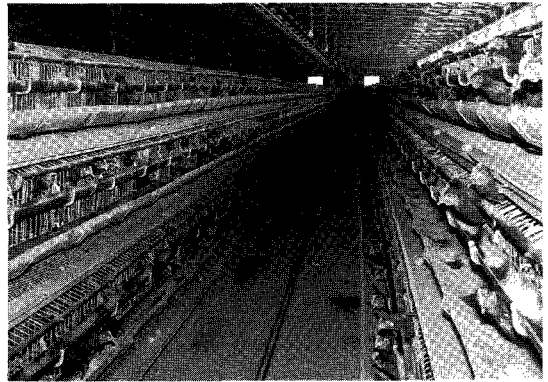
그러나 산란계는 7주령까지 표준체중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며 이후 부터는 금방 체중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나면 속으로 이제 다 키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때가 많으며 이후 18~19주령이 되면 시산을 하게 되고 25~40주령에는 계생에서 가장 많은 계란을 낳게 되며 40주령이 넘으면 체중이 넘어서 지방계 걱정을 하게 된다.

이후 50주령을 넘어서면 산란율이 떨어지는 하지만 아주 안정된 시기를 맞게되며 그리고는 70주령 후반 또는 80주령이 되면 아쉽지만 한많은 계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다. 아주 흡사하다고 본다.

한가지 다르다면 환우를 하고나면 산란이 다시 올라간다는 것인데 사람도 단식을 하면 회춘을 한다든가? 글쎄 필자는 이것을 해보지 않아서... 하여간 질병예방 또는 치료시에 닭의 주령과 사람 나이를 비교해가면서 조치를 취한다면 최소한 무리수를 두는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람과 닭 이변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유일한 동물이라 하지만 자기위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닭은 원래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수 많은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는 동물이다.

몸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금방 섭취량이 줄어들고 산란율이 떨어지며, 배속이 이상할때는 고동 삶은 것같은 정상적인 분모양이 흐트러지거나 색깔이 변하고, 호흡기에 이상이 있으면 기성음을 나타내고, 기분이 좋을때와 나쁠때의 소리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자신의 의사를 케이지에 꼼짝못하게 가두어둔 주인 또는 관리자에게 열심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려 하지않고 자기위주로만 생각을 하기가 쉽다. 성공하는 폴츄리맨이 되기위해서는 닭이 내보내는 시그널을 아주 잘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양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사문을 열기전에는 계사내에서 어떤 소리가 나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고서 계사내부의 상황을 먼저 머리속에 그려보고 문을 연다.

이후 계사내 공기상태, 벼슬상태, 닭소리, 계분상태, 난각상태, 닭행동 등의 모든것을 오감으로 느껴야 한다. 소를 오래 키우신 분들은 운동장이 아무리 넓더라도 두수를 일일이 세어보

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책 보면 몇두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없어진 녀석의 번호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닭이 내보내는 시그널을 즉시 포착하고 닭과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머리속에 스크린을 만들어 닭의 입장에서 그려 보는 것이다. 이 스크린은 처음에는 정지화면일 수 밖에 없으나 계속 하게 되면 점차로 동화상(움직이는 화면)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는 과거, 현재, 미래를 점(?)을 쳐서 대처를 한다면 이것 또한 무리수를 두지않게 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하간 성공하는 양계인이 되기 위해서는 닭의 입장에 서서 닭과 대화하는 양계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스포츠맨쉽, 영업하는 사람에게는 세일즈맨쉽이 있듯이 양계하는 사람에게 폴츄리맨쉽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것이라 믿는다.

3. 사람과 닭 삼변

한때는 뉴젯슬 백신프로그램을 3일, 3주, 3개월에 권장하여 3,3,3법이라고 하면서 많이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병아리 3,3,3이란 병아리가 3일령까지는 다이아몬드 시기, 3주령까지는 골드시기, 3개월까지는 실버시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이 시기에 중요관리사항 또는 방역관리 사항을 놓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무리수를 두게 된다.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예로써 백신접종할 시기는 되었는데 호흡기질병이 들어와 이것을 치료하고서 접종을 할 예정이었는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질병이란 놈이 그냥 들어와 낭패를 보이는 경우이다.

여기서 생각해봐야할 것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예중 질병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20% 정도, 사양관리에 기인하는 경우는 8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이 필자의 경험이다. 즉 결과는 질병으로 나타나 있으나 원인 제공은 사양관리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쯤 해 두고 병아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병아리 시기에 온, 습도를 맞추어 주는 것은 기본이다. 너무 기본이라 그런지 온풍기만 틀어 주면 온도관리는 끝으로 이는 양계인이 많다.

습도 이야기는 더욱 그러하다. 온풍기는 가동하고 있고 사람이 서있는 부위는 온도가 맞다고 하더라도 병아리있는 부위는 낮아지기가 쉽상이다. 셋바람이 들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셋바람이라고 술술 들어와야 셋바람인가. 단열이 제대로 되었지 않은 계사 실정에서 소위 우풍이 심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기를 위해 틀어논 쉐의 타이머가 15분 내지 30분씩 한꺼번에 돌아가니 계사내 온도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를 오고 가고 호흡기질병은 어찌 그냥 지나가겠는가? 단열이 좋지 않은 계사에서는 1분 타이머를 쓰는 것이 좋다. 그래야 계사내 온도는 집앞 동산 정도의 높낮이를 유지하게되고 병아리도 황금시기를 구가하게 된다.

습도는 넓은 가제를 소독수 통에 담귀 놓고 끝은 천정에 매달아 두면 해결 할 수 있다. 바깥 마른 환경에서는 먼지가 많이 나게되고 먼지수의 91.3%는 세균이란 것을 염두해 두도록

한다.

닭은 폐로써 숨을 쉬기도 하지만 사람과 달리 날짐승이기 때문에 기낭이란 것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기낭은 간, 창자 등의 내부장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먼지를 많이 마시면 세균을 마시는 결과가 되고 염증이 일어난다. 그러면 간에도 염증이 전이되어 폐사한 것을 해부해 보면 간에 두텁고 허연 막이 생겨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간포막염이 된 것이다.

또한 습도가 낮게 되면 코안과 기도가 마르게 되어 저항력도 약하게 되고 동시에 걸러주는 역할을 못하게 되어 먼지를 더욱 많이 마시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생독접종후 백신효과도 떨어지게 되어 질병은 따라 다니게 된다.

습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병아리에게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역으로 계사바닥이 질척하여 습도는 맞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환기가 되지 않아 바닥이 질척하게 되는 것이고 습도가 맞다고 하는 공기 그 자체는 썩은 공기인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역시 계사내의 환경컨트롤을 위한 환기문제인데 현재의 시설을 크게 건들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며 실력있는 국내 시설회사는 여기에 대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월동준비를 위해 올 겨울도 역시 밀폐를 할 것이고 병아리 3,3,3은 역시 위에서 이야기 된 것들과 싸움을 계속하게 될 것이며 사람은 닭이 이기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4. 사람과 닭 사번

병아리 3, 3, 3을 지나 산란 준비를 하는 시기가 되면 계생에서 체중이 가장 많이 불어나는 시기로 돌입하게 되며 이 현상은 대개 산란 피크때 까지 유지된다. 산란율과 난중 또한 급격히 불어나며 여기에는 성호르몬 분비 또한 가장 왕성하게 작용하여 급여량이 적다든가 사료가 부실하면 이 모든 것들의 균형이 무너져 버린다.

아울러 이때부터 산란피크까지는, 영양의 균형면에서 들어가는 것도 많고 나오는 것도 많아 기계로 따지면 풀가동 되는 시기인지라, 닭 자체도 생리적으로 아주 허약해 육성기때 몸안에 남았던 세균 등이 건강이라는 억눌림 속에서 해방되어 난동을 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이때는 신무기와 증원균을 보내줘야 하는데 영양소가 높은 사료급여, 비타민제 급여, 약품에 의한 크리닝 작업이 그것이라 볼 수 있다. 사람이란 항상 자기 생각부터 먼저하기에, 쏟아지는 계란의 환회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망각하기 쉽게 된다.

반드시 크리닝 작업과 영양소를 보충해 주어 체력을 북돋워 주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때 이때 들어가는 비용은 반드시 값어치 있는 것이 닭이라 생각한다.

5. 사람과 닭 오번

필자는 질병검사를 위해 현장에서 많은 닭을 해부하여야만 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죄가 되는지 어떤지 여기 저기서 많이 물어 보기도 하였는데 말 못하는 짐승들을 위해 좋은일 하는 것이라 괜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찔찔한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았다.

그러던 중 하루는 자칭 도사라 하는 사람을 만나 다소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사자라는 동물이 배가 고파 다른 동물을 잡아 먹었다면, 그것은 자연의 섭리에 해당하는 것이나 심심해서 재미로 잡았다면 죄에 해당한다는 즐거리의 내용이었다.

물론 수의사들이 수귀비 앞에서 열목숨 위해 한목숨 바치나니...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행하는 의식도 있었지만 왠지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닭이 아무리 잘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에 대한 생명경외사상을 조금이라도 가지자는 것이며 조그만 방법론을 이야기 하면 좀 곱게 봐주고, 곱게 다루자 하는 이야기다.

서구에서는 동물복지법으로 축산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정도이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지킴은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예를 들자면, 앞에서 이야기 한것과 같이 열목숨위해 한목숨 희생하는 닭의 경우 담배를 물고서 또는 허연 이빨을 들어내어 웃으면서 해부검사에 임하는 것은 극히 좋지 않은 일이라 생각한다.

생명경외사상과는 거리가 먼 행동인 것이다. 농장 관리시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을 위해 몸을 바쳐 고기를 내주고 계란을 내주는데 무엇이 그리도 미운지 목을 틀고, 내 동맹이 치는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농장을 방문했을때 해부를 위해 가검물을 들고 나오는데 옆구리에 닭을 품듯이 안고 나오는 것이다.

얼른 눈치를 채고 물었더니, 먼 거리를 걸어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손으로 키운 닭이

라 죽는다고 하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지만 어쩔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다. 엄청난 책임감이 느껴졌었다. 제일 밑에 있는 관리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 그 농장이 잘못될리가 없다.

올해도 그농장은 사업적으로 대성공을 한걸로 알고 있다. 질병이 들어와 매일 죽어 나갈때는 닭을 보기만 해도 징그러울때가 있고 계사문을 열어 보기가 두렵기 까지 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차피 해야 될일이고 한다면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하는 것이 닭도 좋고 사람도 좋지 않겠는가?

요즘 마스크에서 그린음악을 틀어준 식물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잘 큰다고 보도하고 있다. 닭도 마찬가지인 것은 어느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다. 닭은 사람이 해준만큼 해주고 돌아가는 동물이며 거짓말 않는 동물이란 것을 우리는 입버릇 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닭을 다루면서 힘든일이 있을때는 어차피 세상에 태어난 목숨에 대해 얼핏이라도 생명경외사상을 가지도록하자. 그리고는 잘못하는 짐승이지만 대화를 시도해보자.

이것은 양계인으로서의 사업성공과 더불어 진정한 폴츄리맨 습을 갖게 해주는 길이라 믿으며 질병예방에 있어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적인 길이되리라 생각한다. **양계**

**달같하나 건강하나
동그랗게 웃는 하루**